

#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 무료교육 콘텐츠 제공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문포털사이트인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www.ipacademy.net)'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는 지난해 11월 전면적인 사이트 개편과 함께 일반인과 청소년이 각기 다른 정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라는 온라인 교육의 특성을 살려 무료로 많은 교육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민의 발명 마인드 고취와 지식재산권 정보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는 일반인, 전문가, 자격증 분야, 청소년, 발명지도교사, 학부모 분야에 걸쳐 지식재산권, 발명특허 부문,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 발명 및 창의력 고양 부문, 발명 아이디어 창출, 발명품 제작실습 및 발명품 운영 방법 등 60여개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만 하면 모든 정보와 교육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교육뿐만 아니라 특강 및 각종 자료와 정보, 발명 행사 등도 온라인 상으로 볼 수 있으며 동호회 활동도 가능하다.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인력개발팀 02-3459-2771~5

▼ 지난해 11월 사이버 국제특허아카데미의 온라인 서비스가 일반인용(왼쪽)과 청소년용(오른쪽)으로 세분화되어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직무 발명'으로 원가절감 효과 '톡톡'

현대·기아자동차는 비용절감을 일상적인 업무환경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다. 우선 사육과 관련된 비용절감 효과만해도 연간 약 2억원에 달한다. 적정온도에서 겨울에는 조금 춥게, 여름은 조금 덥게 온도를 조절하고 조명도 자동 조절기를 통해 증식시간과 야간 8시 이후에는 1시간 단위로 자동 점멸되도록 했다. 또 지하수를 중수 처리해 생활용수로 재활용하고 탈취설비도 시간대별로 팬을 돌려 비용절감을 이뤄냈다.

현대자동차의 원가절감 노력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직무 발명 실적 보상 프로그램'. 지난 2001년에 등록된 발명 가운데 3년 이상 제품에 적용돼 3년 평균 5백만원 이상의 원가절감 실적 또는 일정수준의 성능향상 효과를 가져온 발명에 대해 최고 5천만원까지 실적보상금을 지급했다.

수동변속기설계팀 윤희덕 선임연구원을 비롯, 모두 51명이 실적보상금을 수령했으며 보상금 총액은 3억4천2백25만원에 달한다. 이번 실적보상 심사는 지난해 3~8월 접수기간 동안 총 1백92건이 접수됐으며 9~10월 자료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11월 팀장급 심의위원회 심의, 12월 임원급 심의위원회가 열렸으며 그 결과 원가절감 29건, 성능향상 36건 등 모두 65건의 시상이 확정됐다.

특히 '상시4륜 구동장치'를 발명한 수동변속기설계팀 윤희덕 선임연구원과 '리어 서스펜션 메커니즘'을 개발한 플랫폼개발실 이연구 이사가 최고의 실적보상금을 받았으며 이 발명은 신타페에 적용, 약 3백억원에 달하는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 이연구 이사의 토우콘트롤에 의한 리어 서스펜션은 EF 쏘나타, 그랜저 XG, 옵티마 등에 적용돼 1백45억원에 달하는 원가절감 효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발명가와 발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의 회원 가입을 기다립니다.

- 홈페이지 [www.inventor.or.kr](http://www.inventor.or.kr)
- 사무국 (02)538-2710 / (02)538-2702
- Fax (02)538-2714

# 노 대통령, 연구개발 의욕 살아날 수 있도록 '직무관련 발명 인센티브 방안 마련'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기업들의 투자가 저해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 의욕도 살아날 수 있는 직무관련 발명에 대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역혁신 클러스트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혁신 주도형 전략을 만들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산업자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혁신 클러스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높여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이 부족하면 대학을 통해 인력을 밀어주고 연구 인력이 모자라면 지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소를 통해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대덕단지 같은 경우 연구 인력과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해 실리콘밸리 수준의 세계 최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트로 끌고 가보자'고 말했다.

또 직무 관련 발명 인센티브와 관련해 '그것이 기술혁신 과정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저해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 의욕도 살아날 수 있도록 직무관련 발명 인센티브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병역 특례 폐지 재검토와 관련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별히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품질이 보장된  
최고의 품질과 제품성이 인정  
되어되는 입증제도입니다.

## 숯의 신비 = Carbona 카보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무턱대고 굽지마십시오!**

카보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발생되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카보나는, 연기가 없고 냄새를 제거하므로 공기를 정화시킵니다  
카보나는, 고기맛을 좋게하고 사용후 불판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여과작용 · 탈취작용 · 습도조절작용 · 해독작용 · 정화작용 ·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혈액순환

카보나는 천연 참숯을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Carbona(숯) + carbon(탄소) + 나(我)의 합성어로  
탄소입니다. 즉, 탄소의 결정체인 "숯에 있는 수많은 효능이  
사용하는 고객과 한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ISDigital**

www.isdigital.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29-8호  
TEL.(02)567-8080 FAX.(02)539-4600

# 발명꿈나무 양성의 요람 '지식재산교육센터' 신축



▲ '지식재산교육센터' 착공식에 참석한 내빈들. 이번 센터 신축은 발명 인재들에게 다양한 발명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전국 발명꿈나무 양성의 요람이 될 지식재산교육센터를 대덕연구단지에 건립, 착공식을 지난달 13일에 대덕연구단지 내 국제특허연수부에서 가졌다.

착공식에는 하동만 특허청장과 홍성표 대전시교육청 교육감, 유덕준 충청남도 부지사, 이현규 국립중앙과학관장, 김상원 유성구 부구청장 등을 비롯하여 한국여성발명협회 한미영 회장 등 관련 인사와 학생 1백여명이 참석했다.

지식재산교육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에 총 연면적 1천2백평의 규모로 4개의 공작실습실과 발명체험실, 시청각실, 연구자료실 등 시설을 갖추어 각 지역에서 선

발된 우수 발명인재들에게 다양한 발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과 특허청의 심사관 등 풍부한 과학기술인력을 강사로 활용하고 대덕연구단지의 각 연구소, 국립중앙과학관 등의 시설도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하여 한층 심화된 발명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그밖에 기존의 발명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각 지역 발명공작교실에 보급함으로써 발명꿈나무 양성사업의 뿌리를 튼튼히 하게 될 지역지원센터의 역할도 겸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허청은 그동안 중소기업, 여성, 학생 등 각 분야와 각 지방에서 발명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학생 분야에서는 발명꿈나무 양성사업으로 각급 학교 발명반을 활성화시키고, 각 시·군·구에 발명공작교실 설치를 확대하여 학생발명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우수 발명인재들에게 발명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발명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하동만 특허청장은 '이번 지식재산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길러주는 발명교육과 발명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체험교육 등도 실시하여 발명꿈나무 양성사업의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따뜻한 자전거 손잡이 발명 화제



▲ 따뜻한 자전거 손잡이를 발명해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광영씨.

세무서 직원이 열을 실내에 고루 퍼지도록 하는 온풍기와 자전거 등의 손잡이를 따뜻하게 해주는 장치를 발명해 화제다.

전남 여수세무서 이광영(46세·6급)씨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열 확산 장치가 구비된 온풍기'와 '온열 핸들' 등 2건의 실용신안특허를 받았다.

온풍기는 온열기에 선풍기 기능을 더한 것으로 일정한 곳에만 열을 보내는 온열기의 단점을 보완, 열을 바람에 실어 실내에 골고루 퍼지도록 했다. 또 온열 핸들은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공구 등의 손잡이에 열선을 넣어 겨울에 장갑을 끼지 않아도 운전 및 작업하기가 가능하도록 한 장치다. 건전지로 작동되는 이 핸들은 섭씨 20도까지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이씨는 '겨울철에 친구집이나 식당 등에 있는 온열기가 주변만 따뜻하게 해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점과 장갑을 끼고 벽에 못을 박다가 망치로 손가락을 다친 경험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근무할 때나 평소 생활하는 과정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 발명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발명품은 대기업 S전기 등에서 특허권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와 함께 최근 태양열을 이용, 각종 도로표지판 등의 글자가 밤에도 뚜렷하게 보이도록 하는 '발광 표지판' 등 2건을 실용신안 및 발명·특허 출원을 한 발명가이다.

## | 책 속의 이야기⑧ |

# 발명, 그 매혹적인 세계

뜨개질 계산기인 '트리콜로'의 발명가는 1929년 파리에서 태어난 재클린 폰더스다. 1978년 재클린이 50세 되던 생일 바로 전에 그녀의 최고 발명품인 뜨개질 계산기가 특허를 얻었다.

5cm 길이의 가벼운 이 계산기는 뜨개바늘 또는 코바늘의 몽툰한 끝에 달려 있는데, 단을 짤 때마다 뒤에 빠져 나오는 단추 위를 엄지 손가락으로 누름으로써 같은 패턴으로 어느 정도의 줄을 짰는지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계산기는 자동적으로 1~10자리의 최고 99까지 기록할 수 있다.

이제 뜨개질의 단을 다시 셀 필요가 없으며 어느 정도 짰는지 보기위해 필요했던 줄자, 연필, 종이 같은 것이 필요 없게 되었다. 트리콜로는 바늘 끝에 기억장치를 갖고 있어서 나타내는 수치만 보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뜨개질의 단을 세는 계산기는 이론상으로 매우 간단한 기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기계를 제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뚜껑, 탄력 있는 고무패드, 작은 홈, 가늘고 긴 구멍, 몸통, 톱니 멈춤쇠 등 재클린은 자신의 발명품과 발명을 성공시키기까지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었다.

'뜨개질의 단을 세는 계산기는 이미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몇가지 결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 결점들은 뜨개바늘과 코바늘의 모든 종류에 잘 맞지 않는다. 또 다른 결점은 편리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은 계산기를 다루기 위해 종종 두 손을 다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계산기들은 숫자를 조정하기 위해 눈과 손을 동시에 사용해야 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나 책을 보는 동안에도 단을 세면서 뜨개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클린은 힘있게 설명했다. '트리콜로는 간단한 장치가 아니며, 그것은 마이크로 공학 분야에 더 관련 있는 기계로, 그것에 대한 구상은 내게 많은 노력을 요구했다. 그 기계는 복잡했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도 많은 좌절을 겪었다.'

프랑스에서는 발명품이 최초 단계에 있을 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려움이 있다. 발명가들은 싸워야 한다. 첫 싸움에서 이겼다 해도 상품을 시장화하는 두 번째 싸움은 더 어렵다. 그래서 재클린은 스위스에 호소했으나, 비록 스위스가 기술면에서는 완전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최종 약속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더 큰 문제는 복잡한 세관이었다.

1985년 말 재클린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프랑스에서 트리콜로의 시장화를 해결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발명가들처럼 재클린도 낯선 사업이라는 세계에 직면했다.

처음에 그녀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조차도 몰랐다. 재클린은 독일과 모나코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며, 유명한 고급 양장점들과 교제할 기회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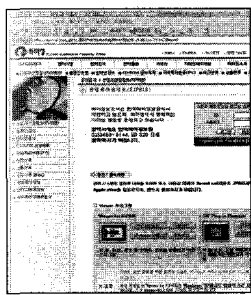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발명을 통해 나는 매혹적인 또 다른 세계를 알았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깨우쳤다. 자분가는 유혹적인 자금 제공으로 우리를 긴장시키고 지연시키며 우리들을 인수하려 한다. 나는 전력을 다해 싸웠다.'

실망과 좌절을 겪은 발명가는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모든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1초도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재클린 폰더스는 단호하게 말한다. '발명의 감동은 대단한 모험이기 때문이다.'

# 특허청, 상품해설 인터넷 검색 서비스 제공한다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상표 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상품해설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난달 14일부터 제공했다.

출원인이 상표를 등록 받고자 할 경우에 그 상표를 사용할 대상인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산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상품명의 출현과 통일화된 상품명의 부재로 인하여 출원인들이 상표를 출원할 때 상품을 지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상표 심사관이나 심판관들도 심사·심판 시에 다양한 상품의 용도, 기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일일이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표법시행규칙별표상의 상품 7천70여개 중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품들(예: 쌀, 빵 등)을 제외한 5천여 개의 상품에 대한 해설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품해설 검색서비스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품의 용도, 기능 등에 대한 해설 외에 사진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또한 상표출원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품의 영문명도 수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의 상품해설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업 해설'도 향후 제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품 서비스로서 이제까지 출원된 상품과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상품해설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정보검색란으로 접속하여 찾고자 하는 상품명을 입력하면 된다.